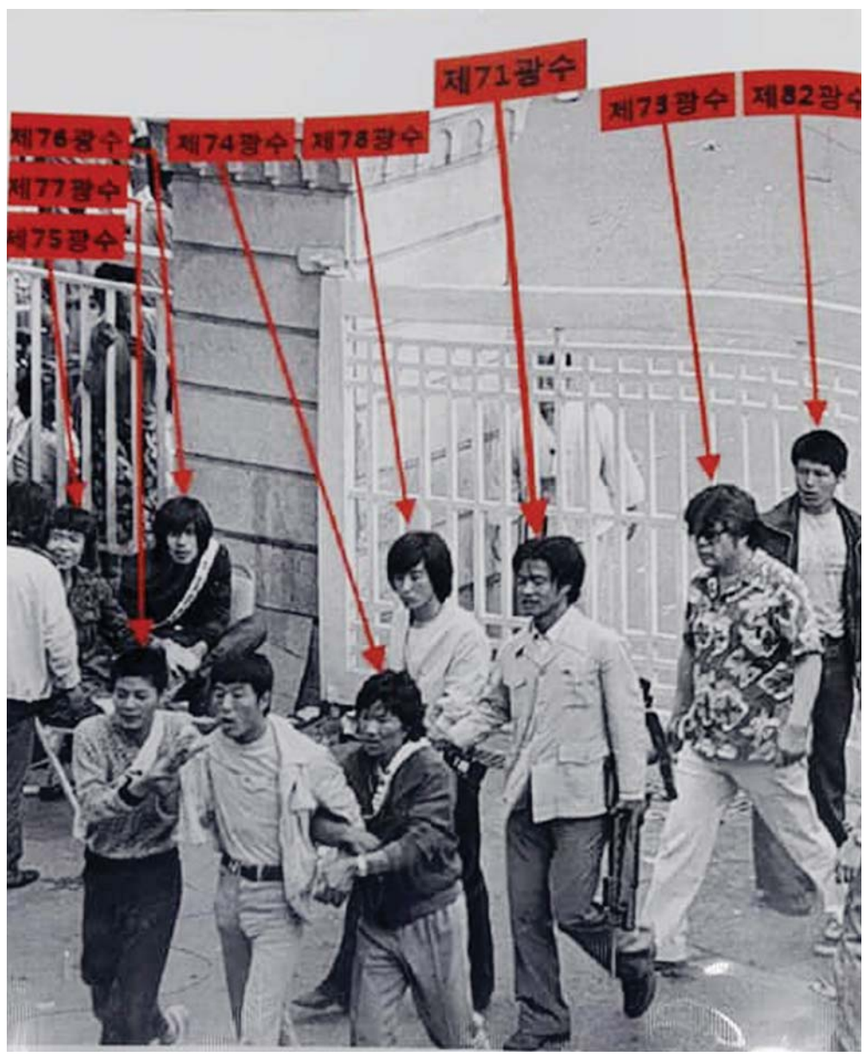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0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5월 24일 (음력 4월 10일) 목요일

'북한군 왜곡' 5·18 시민군, 신원 밝혀졌다

호남 농촌지도자 양성 힘쓴 부호 지응현씨 손자로 확인
지만원씨로부터 73광수 지목당한 지용씨, 검찰 고소 방침
전일빌딩 헬기사격 목격 증언 "북한군 개입설 허구 입증"



5·18기념 문화센터 임종수 소장은 23일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해 헬기사격을 목격한 지용(76)씨가 호남 부호 고 지응현씨의 손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극우보수논객 지만원씨는 지용씨를 북한 특수군(73광수 · 왼쪽 사진)으로 왜곡했다. 이를 최근 알게 된 지용씨는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극우보수논객 지만원씨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73광수)으로 왜곡한 시민군이 호남 농촌지도자 양성에 힘써온 부호 지응현씨의 손자로 밝혀졌다.

5·18기념문화센터 임종수 소장은 23일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해 헬기사격을 목격한 지용(76)씨가 고 지응현씨의 손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주의 대표적인 부호로 손꼽힌 지응현씨는 응세농업학교와 수의학교를 설립해 농촌지도자를 양성했고,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펼쳤다.

광주 서구 쌍촌동 대건신학교(현 가톨릭평생교육원)와 동구 지산동 살레시오 여자고등학교, 서구 금호동 상무초등학교 부지도 기증했다. 광주·전남에는 그의 송덕비가 17기가 있다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그의 손자인 지용씨는 최근 센터를 찾아 "자신이 지만원 책자에 나오는 제73 광수"라고 증언했다.

지용씨는 딸이 인터넷 게시물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알아본 뒤 메시지를 보내면서 광수로 지목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용씨는 5·18 항쟁 기간 옛 전남도청 상황실에서 총기 관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1980년 5월29일 합수부에 자수했고, 그동안 시민군 활동을 밝히지 않고 지내왔다.

지용씨는 "1980년 5월 22일~23일 사이 계엄군 헬기가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을 향해 수십 발의 총을 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은 지난 2016년 12월13일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됐다.

지용씨는 지만원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임종수 소장은 "지용씨 아내 또한 주먹밥을 나르는 등 지씨 집안 모두 5·18 때 항쟁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극우인사들이 제기한 북한군 개입설의 허구가 또 한번 밝혀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만원씨로부터 북한군 광수로 지목된 사람 중 20여 명이 사진 속 인물이 자신임을 증명했고 14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올 여름 무더위 평년보다 더하거나 비슷할 듯

기상청

7월 전반 많은 비…후반 무더위 전망
8월 무더운 날씨, 소나기 오는 곳도

오는 6~8월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더운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며, 태풍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이 23일 발표한 3개월 예보에 따르면 올 6월에는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올 때가 있겠다.

월 평균기온은 평년(20.9~21.5도)보다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130.3~186㎜)과 비슷하겠다.

7월에는 전반에는 저기압과 상층한기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고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 후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는 때가 있을 전망이다.

월 평균 기온은 평년(24~25도)과 비슷하겠다. 강수량 또한 평년(240.4~295.9㎜)과 큰 차이가 없겠다.

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무더운 날씨가 나타날 때가 있겠으며,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강한 때가 있겠다. 다만 지역적으로 날씨와 기후의 편차가 있겠다.

월 평균기온은 평년(24.6~25.6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220.1~322.5㎜)과 비슷하거나 적겠다.

지난 13~19일 기준 열대태평양의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3.4 지역 : 5°S~5°N, 170°W~120°W)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기상청은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중립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립상태'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과 비슷해 엘니뇨·라니냐 어느 한쪽도 발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올 여름철 태풍은 9~12개 발생해 약 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20일 평균 기온은 17도로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다. 강수량은 99.3㎜를 기록했다.

봄철 황사 일수는 2.1일로 평년(3.4~7.3일)에 비해 적었다. 특히 3월, 5월의 경우 이동성 고·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남풍 기류의 유입이 잦아 북서 기류를 따라 유입되는 황사 사례가 거의 없었다.

Photo 漫評

확신

청와대는 최근 북한의 대미 · 대남 비난으로 조성된 한반도 경색 국면에도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1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은 지금 99.9% 성사된 것으로 본다"며 "다만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4번째를 맞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양자회담과 관련, "만남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 상황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한 정상 차원의 솔직한 의견 교환이 주목적"이라며 "그래서 정상회담 진행 방식도 과거와는 달리 딱 두 정상 간 만남을 위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뉴시스

정의용

홍준표

정의용